

새학년 교육과정 준비 몰두

전남도교육청, 중학교 교육과정 연수 성료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문화 정착 등으로 구성



전남도교육청이 2019학년도 2학기도 끝나기 전에 2020학년도 새학년 교육과정 준비에 나서 학교 현장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준비된 교육과정으로 학생의 배움과 성장이 일어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2019학년도부터 '새학년 집중 준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 현장의 반응이 좋고, 효과도 컸다는 평을 들었다.

이에 내년에는 이를 더 내실화해 운영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그 준비기간을 더 당겨서 효과를

배가시킨다는 게 도교육청의 복안이다. 아직 2019학년도 2학기도 끝나지 않았는데 2020학년도 교육과정 준비에 나선 것이다.

도교육청은 6일 나주 동신대학교 대정3관 투게더홀에서 '2020학년도 중학교 수업혁신으로 완성해가는 교육과정' 연수를 가졌다. 당초 한 학교 당 1명씩 참석해줄 것으로 요청했으나 2명 참석한 학교가 많아 370명 이상이 흠을 가득 메운 가운데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연수는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

하고 교육활동 중심 학교문화 정착을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 꾸려졌다. 교육평론가 이범의 '교육정책과 직업세계의 변화' 특강, 과정중심 학생평가와 새학년 집중 준비기간 운영 우수사례 발표, 공정한 학생평가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요령 안내 등이 이어졌다.

도교육청은 자리를 함께 한 중학교 교감, 교무부장, 교육과정부장 등에게 '2020학년도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연수'를 통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래 핵심역량을 키워줄 배움중심 수업에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모든 학교가 새학년 교육계획 및 교육활동 공동수업을 위해 '교직원 만남의 날'을 운영함으로써 자율과 협력의 비전을 공유하고 구현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강에 나선 이범 교육평론가(전 서울시교육청 정책보좌관)은 "고등학교의 다양한 학생 맞춤형 교과학습제는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이라며, "중학교에서부터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기주도적 학습력과 생각을 키우는 힘을 길러주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성은 기자

학교폭력 위기 학교, 적극적인 지원 요청으로 문제 해결

광주동부교육청, 긴급회의 통해 프로그램 제공

학교폭력 위기 직전 교실에 공동 협력 사례 제시

광주동부교육청은 6일과 7일 2일간 학교폭력 위기 상황 직전으로 어려움에 처한 학교현장의 지원 요구에 적극적으로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학교와 협의하며 지원했다.

사안은 관내 모 초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발생했다. 학급 또래들 간 어울리는 과정에서 사소한 다툼이 학부모들 간 감정싸움으로 번지기 직전의 상황에 처한 것이다.

해당 학교는 동부교육지원청 민주시민교육과에 도움을 요청했다. 해당 과에서는 즉시, 과정을 비롯한 생활교육팀 정학사, 전문상담사 등이 학급 위기 상황에 대한 지원을 위한 긴급회의를 실시했다.

그 결과 해당 학급 학생들에게는 저학년 학생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장난과 폭력의 불명확한 경계를 세울 수 있는 도란도란 프로그램을 제공했고, 학부모의 이해와 협력을 이끄는 학부모 교육을 제안하고, 전문강사 인력을 추천했다. 이에 학교는 학교

생활교육위원회를 통해 지원청 제안을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6일에는 2시간 동안 교실 민주주의를 주제로 학습연구년 중인 교사 안미영을 강사로 해당 학급에 지원하여 '나, 너, 함께 존중하는 우리'라는 주제로 학생들과 마음 공감하기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학부모가 함께 해야 학교폭력 예방 등 생활교육이 효과가 있다는 철학으로 7일에는 2시간 동안 해당 학급 학부모를 대상으로 '나의 자녀에서 우리의 자녀로, 학부모 공동체 세우기'를 주제로 학부모 교육을 실시했다.

수업에 참여한 한 학생은 "장난이라도 친구 기분을 나쁘게 하면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앞으로는 친구가 싫다고 하면 장난을 멈추겠다."고 말했다.

학부모 교육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는 말이 남 얼저럼 느끼고 있었

는데 지칫 우리에게도 실제로 일어날 뻔한 상황이었지만, 교육청과 학교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덕에 모두 함께 우리 반 모든 자녀를 키운다는 것에 대해 깊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뿌듯해 했다.

장영신 교육장은 "오즘 학교현장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대한 지나친 의존으로 인해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 중심의 대책은 현장을 바꾸지 못한다는 회의적인 시각까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고 말하며 "이번에 위기 직전의 학교현장이 적극적으로 지원청에 도움을 요청하고, 이에 지원청은 함께 고민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이는 곧 지원청과 학교가 협력 체제를 구축해 선생님, 학생, 학부모, 지원청 모두가 함께 배우며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 양상은 어느 하나 같은 사안 이 없을 정도로 천차만별이다. 이에 학교현장은 관련 법, 학부모, 학생 사이에서 최정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이번 사례는 지원청과 학교가 함께 나아가야 하는 하나의 긍정적 방향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국립청소년우주센터에서 지식UP하고, 마음UP하고

우주센터 체험부터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등

지식 뿐 아니라 마음 치유 프로그램도 포함 돼



전남도교육청이 국립청소년우주센터와 손을 잡고 전남학생들의 자존감 향상과 정서적 치유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12월 5 ~ 6일 고흥

국립청소년 우주센터에서 자존감 향상과 친구관계 개선을 희망하는 학생 30명이 참여한 가운데 '별과 함께 감성치유여행'을 진행했다.

참여 학생들은 이틀 동안 비폭력대화 나누기, 기관의 특색에 맞춘 우주센터 체험과 천체투영 교육 및 천체 관측, 3D게임 만들기 등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 또래와의 긍정적인 관계 증진을 모색했다. 또, 친구와 1:1 합숙으로 깊이 있는 소통 기회도 가졌다.

학생들은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감성 사진 찍기를 하며 친구들과 공감대를 이루고 친밀감을 형성했다.

김성애 학생생활안전과장은 "우리 아이들은 작은 칭찬이나 격려를 통해서도 자신감과 자존감이 향상된다."며 "이번 감성치유여행을 통해 일상에서 벗어나 서로의 마음을 톺 터놓고 대화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위로와 응원의 시간을 가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성은 기자

통학 불편해소 위한 영광군 에듀택시 운영 협약 체결

버스 승차시간이 1시간 이상인 학생들 지원 예정

통학 여건 개선 통한 안전한 학교 문화 조성



영광교육청과 영광군은 지난 6일 초·중학생들의 통학 불편해소

를 위한 에듀택시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에듀택시는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통학 거리가 2km를 초과하고, 버스 승차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여 통학에 불편을 겪고 있는 영광군 초·중학생에게 통학택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광교육지원청과 영광군의 대응투자 사업이다.

허 호 교육장은 "에듀택시 운영이 놓여준 통학여건 개선을 통한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 및 원거리 학생들의 통학 불편을 해소해 학교생활의 집중도와 흥미를 제고하여 놓여준학교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준성 군수도 "에듀택시 지원을 통한 학생들의 통학 불편 해소로 학생 및 학부모의 부담이 줄어들기 바라며, 앞으로도 영광 학생들을 위한 사업에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